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힘 실어 달라”

황인홍 무주군수, 대통령 전북지역 공약 토론회서 정책·지원 등 호소

황인홍 무주군수가 1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통령 전북지역 공약(문화·체육·관광분야) 토론회에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무주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 용역 등 관련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황 군수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글로벌 지도자 양성을 위한 태권도 전문교육 기관인 만큼 태권도의 정신과 가치를 품고서 경기와 체합, 수련, 교육, 연구, 교류가 모두 가능하도록 조성된 태권도원과 함께 있어야 한다”며 “무주 설립 안을 담은 사전 타당성 용역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기본 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가 예산 확보와 법률 제·개정 등 필요한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과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국가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과 국가경쟁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과 전북발전을 도모하는 동력이자 무주 태권도시의 완성,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열쇠”라며 “국내·외 태권도인을 비롯한, 전북도민 모두가 원하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제 때, 제대로 된 방향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무주군도 열심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통령 전북 지역공약 토론회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전북 지역공약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김윤덕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전라북도가 주최한 자리로, 무주군과 전라북도,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해 주제 발표

와 제언, 종합 토의의 시간을 가졌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수현 교수를 좌장으로 한 주제 발표에서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관한 내용(계명대 정병기 교수)부터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전북연구원 정은천 연구위원), △수중고교학 교육훈련센터 건립(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이규훈 수중발굴 과장), △지리산과 무진장을 연계한 휴양관광벨트 조성(전주대 최영기 교수), △지리산과 무진장을 연계한 휴양관광벨트 조성(전주대 최영기 교수), △지리산과 무진장을 연계한 휴양관광벨트 조성(전주대 최영기 교수)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전북 지역공약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김윤덕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전라북도가 주최한 자리로, 무주군과 전라북도,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해 주제 발표

탄소중립 실현 위한 조림사업 추진

진안군, 494ha 면적 산림에 38억 3700만원 예산 투입

군 전체 면적의 76% 이상이 임야로 이뤄진 진안군이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봄철 조림사

업을 추진한다. 군은 숲이 가지는 탄소저장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탄소저장 효과가 높은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해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이란 조림사업 등을 통해 탄소흡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탄소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탄소의 흡수원이자 저장고인 산림을 보호하고, 훼손된 산림을 다시 복원하여 탄소감축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산림 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림사업은 494ha 면적의 산림에 38억 3천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며 주요 사업은 △경제수 조림(수익성, 경제성 높은 경제수로 대체 조림)300ha △큰나무 조림(주요 도로변, 관광지 주변에 큰 나무 식재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도모)104ha △탄소저감사업(도시 내외곽 및 생활권 주변 공공녹지 활용 나무심기 확대도 쾌적한 대기환경 제공)19ha 이다.

진안군청 박춘선 산림과장은 “최근 군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나무심기를 추진할 계획이며, 야생, 백합, 헛개나무 등 밀원수 200ha를 식재하여 양봉·한방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전체 면적의 76% 이상이 임야로 이뤄진 진안군이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봄철 조림사업을 추진한다.

무주군,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총력’

무주군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2024~2025년도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에 총력을 쏟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굴된 2024~2025년도 신규 국가예산은 56건, 총사

업비 2,520억 원으로 안국사 영산회괘불탱 보존처리 및 모시품 제작사업(8억 원), 설천면 대불리 하수관로 정비사업(109억 원), 구전동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 사업(100억 원) 등이다. 군은 국가예산사업 발굴과 예산확보

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북연구원과의 국가 예산 신규 사업 발굴 용역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T/F팀과 합동워크숍, 전북연구원 전문가 무주 현장방문, 매일 수시로 분야별 컨설팅을 거쳐 무주군 발전을 견인 할 수 있는 국가예산 사업을 발굴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진안군, 여성농업인 건강 챙긴다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선정... 국내 최초 찾아가는 이동 검진 실시

진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내 최초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 검진을 실시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근골격계와 심혈관계질환 분야 등 상대적으로 의료비용이 높은 분야에서 비농업인에 비해 유병률이 높은 점에 착안해 농작업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은 2023년도에는 총 18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이 중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낮은 농촌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진안군만이 이동검진으로 실시되며 타 시군은 기존 유형인 병원검진형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검진비용의 9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자부담 10%는 진안군에서 추가 지원해 검진대상자로 선정된 관내 만 51세~71세 여성농업인은 비용부담 없이 누구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검진은 진안군의료원에서 검진버스를 이용하여 근골격계와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에 10개 항목에 대해 진행하며 울 상반기 중 읍면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여 진안군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이동검진'이 의료접근성이 낮은 우리 지역에 검진율을 높이고, 검진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운영

장수군은 본인 명의로 된 땅이나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조상 소유의 토지를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그동안은 조상의 소유한 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망한 가족과의 관계 및 상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군청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하기 힘든 군민은 온라인 서비스를 신청을 '정부24'(gov.kr)와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조위 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

로 내려받고, 정부24나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해당 문서를 첨부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관할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3일 이내 인터넷에서 열람·출력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해당되며, 조위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2008년 전에 사망한 경우는 이전과 같이 제적등본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해 직접 군청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한다. 1960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 재산은 호주 상속을 받은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점검 실시

무주군이 미래의 인재들인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을 쏟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무주경찰서를 비롯해 무주교육지원청,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무주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무주아동여성지역안전연대)와 함께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방 및 PC방 주변 청소년 일탈행위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무주읍 학교주변 및 변화가를 중심으로 점검을 펼쳤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노래방, 유흥주점 등)와 식당, 편의점 등 술·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를 배부 및 부착하고 유사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예방을 위한 점검과 단속도 병행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무주군이 올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와 피해보상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농작물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설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15개 농가를 대상으로 태양광울타리와 농형철조망 등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목상 전, 담, 과수원 및 농사를 짓는 합법적인 토지에 한해 지원한다.

군은 오는 24일까지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농가당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며, 태양광울타리와 농형철조망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전략작물직불제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장수군은 쌀 수급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전략작물 직불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기본형 공인작물법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추가로 지급하는 선택형 직불제이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겨울철에 식량작물(밀·호밀·보리 등)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원, 여름철에 논·콩·가뭄작물 등을 재배하면 100만원,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면 430만원을 지급한다.

전략 작물 직불제는 벼 과잉생산을 줄여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밀·콩·가뭄작물 등의 생산을 확대해 농산물 자립도와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다.

하계조사료는 2022년도에 벼를 재배하고 2023년 하계에 신규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필지에 한해 지급한다.

/장수=고관호 기자